

사진작가 김영갑이 걸어간 일이관지(一以貫之)의 구도자적 여정

- 자전적 에세이집 『섬에 흘러 필름에 미쳐』,
『그 섬에 내가 있었네』를 대상으로

정 시 열*

- I. 머리말
- II. 예술혼의 극대화와 자기 구현
- III. 의도된 고립과 몰입의 이중주
- IV. 응답으로 다가온 구원과 소진
- V. 맺음말: 두모악에 남겨진 예술가의 초상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사진작가 김영갑(1957~2005)이 남긴 자전적 에세이집인 『섬에 흘러 필름에 미쳐』, 『그 섬에 내가 있었네』를 텍스트로 하여 사진 작업에 임하는 그의 자세와 제주도만을 촬영한 작가로서의 생각과 언급들을 고찰함으로써 사진에 대한 열정과 집념의 구체적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 목적하에 본고에서는 예술혼의 극대화와 자기 구현, 의도적인 고립과 몰입, 응답으로 다가온 구원과 소진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를 전개했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siyoul@hanmail.net

다. 첫째, 그에게 있어 사진 작업은 세파에 얽어진 자신의 본래면목을 찾고, 독자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자기 구현의 과정이었다. 둘째, 그는 고립과 몰입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인간적 외로움을 넘어서고, 제주에서의 사진 작업에 집중할 수 있었다. 셋째, 제주에서 보낸 김영갑의 일생은 응답에 대한 갈구와 기다림의 시간이었는데, 그가 기다린 응답은 세상 차원에서의 인정과 찬사가 아닌 자기 내면에서 솟아나는 각성과 자각이었다. 결국 그의 육신은 소진되었지만 그는 갤러리 두모약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었다.

1982년부터 제주도를 왕래하며 사진을 찍다가, 1985년 제주도에 정착하여, 2005년 48세를 일기로 작고하기까지 김영갑은 20여 년에 걸쳐 제주도에서 사진 작업을 했다. 그에게 있어 제주도는 종교였고, 사진 작업은 수행의 과정이었으며, 카메라는 화두였고, 사진은 수행의 결과물이었다. 그는 사진에 대한 헌신과 몰입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껍질을 깬으며, 갑작스레 만난 루게릭병을 통해 새로운 세상에 대해 개안(開眼)했고, 이를 계기로 <김영갑 갤러리 두모약>을 건립했다. 그가 보낸 제주도에서의 20년 세월은 사진에 대해 스스로가 부여한 소명을 위해 살아가며, 응답을 기다렸던 구도자적 여정의 기간이었다.

주제어 : 김영갑, 제주도, 두모약, 사진, 루게릭병

I. 머리말

본고에서는 사진작가 김영갑(1957~2005)이 남긴 자전적 에세이집인 『섬에 흘러 필름에 미쳐』, 『그 섬에 내가 있었네』를 텍스트로 하여 사진 작업에 임하는 그의 자세와 제주도만을 촬영한 작가로서의 생각과 언급들을 고찰함으로써 사진에 대한 열정과 집념의 구체적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김영갑은 1982년부터 제주도를 오가며 사진 작업을 하다가 1985년부터는 아예 제주도에 정착하여 20년간 제주도의 풍광만을 전문적으로 촬영했던 작가다. 48세를 일기로 작고하기까지 23회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7권의 사진집과 본고의 논의 대상인 2권의 에세이집을 발간했다.

김영갑은 충남 부여에서 출생했지만 그의 인생 자취는 생애의 절반 가까이 를 살았던 제주도에 <김영갑 갤러리 두모악>으로 남아 있다. 1999년 무렵부터 호흡 곤란, 허리와 목의 통증, 손 떨림 등의 증상에 시달리며 여러 병원을 전전했으나 정확한 병명을 모르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병이 루게릭병으로 불리는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임을 알게 되었다.

절망적인 현실과 맞닥뜨린 후 그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어 카메라 셔터조차 누를 힘이 없는 상태가 되었지만 그는 시한부로 허락된 여생을 희망과 셀렘의 시간으로 살아가기 위해,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폐교된 초등학교를 임대 하여 2001년 11월부터 갤러리 건립에 진력했다. 그리고 마침내 2002년 8월 남제주군 색달리에 <김영갑 갤러리 두모악>을 개관했다.¹⁾

1982년부터 20년간 제주도를 주제로 작업했으며, 더 이상 사진을 찍을 수 없게 된 만년에는 갤러리 건립과 운영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던 김영갑은 2005년 5월 29일, 그의 분신과도 같은 두모악에서 운명했고, 그의 유지에 따라 유골은 그곳에 뿌려졌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김영갑의 에세이는 모두 자전적인 성격의 글로서 『섬에 흘러 필름에 미쳐』(1996), 『그 섬에 내가 있었네』(2004) 두 권이다. 열정과 집념은 예술가로서 일가를 이루고자 한다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 덕목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 굳이 열정과 집념에 대해서 고찰하려는 이유는 살아생전 고단했던 그의 인생을 위로하기 위해서요, 이토록 제주를 사랑했던 사진가가 있었음을 알리고자 해서이다.

1) 갤러리 개관을 한 달 앞둔 2002년 7월, 권혁재 기자의 방문기를 보면, 제주 관광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구석배기에 위치해 있는데다, 운동장엔 무덤처럼 쌓인 돌들이 을씨년스럽고, 보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실엔 시멘트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으며, 한 가닥 희망조차 없어 보였지만, 눈을 돌려 어둑한 회색 벽에서 침침한 조명을 받고 있는 사진들을 보는 순간 얼어붙고 말았음을, 김영갑이 왜 그토록 갤러리를 만들고자 했는지를 알 수 있었음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온다(권혁재, 「참 ‘사진바라기’ 김영갑」, 『김영갑-김영갑 5주기를 추모하며』, Human & Books, 2010, 47-48쪽).

본고의 텍스트 격인 두 권의 제목을 보면 하나같이 범상치 않다. 출판사에서 지은 제목일 수도 있겠지만 글 속에 나타난 김영갑의 성품을 생각한다면 그가 직접 정했거나 그의 의향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으리라 여겨진다.

『섬에 흘러 필름에 미쳐』(1996)는 그가 제주도에 정착한 지 10년이 막 지난 시점에 출간된 책으로서 마치 흘러 듯이 섬에 들어와 사진에 미쳐서 보낸 세월을 이야기했다. 입도(入島) 전의 생활과 입도의 계기, 입도를 전후한 시기의 심리적 갈등, 그리고 입도 후의 시련과 인간적 변민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 물론 그 중심에는 사진 작업에 대한 열정이 자리하고 있다.

『그 섬에 내가 있었네』(2004)는 제주살이 20년을 정리한 회고록의 성격을 띠며, 제목에서 본인의 죽음을 예견한 듯한 느낌을 준다. 자신과 20년 넘게 인연을 맺어 온 제주도를 마치 자신과 무관한 듯한, ‘그 섬’이라는 용어로 객관화했으며, ‘있었네’라는 서술어를 통해서 앞으로 어느 시점이 되면 더 이상 자신이 그곳에 없음을 말한 듯하다. 이 책의 특징 중 하나는 제주도를 담은 김영갑 작가의 컬러판 사진이 66컷 실려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을 예감하면서 쓴 책답게 길지 않은 자신의 삶에 대해 미련 없이 최선을 다해 말하고자 한 진정성이, 그가 선별한 사진들과 잘 어우러져 있다.

일이관지(一以貫之)란 하나의 방법이나 태도를 한결같이 견지하거나 하나의 이치나 원리로써 만사를 꿰뚫어보는 것을 의미하는 말인데, 공자가 제자인 증자와 자공에게 ‘일이관지(一以貫之)’의 가르침을 준 데서 유래했다.²⁾ 그런 점에서 본다면 김영갑은 사진이라는 하나의 도구로써 제주와 제주인의 문화, 역사, 그 속에서의 생사고락을 이해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이런 그의 사진관(寫真觀)을 간단히 정리하면 자연에 대한 이해 곧 지식·경험·지혜를 바탕으로 마음속에 원하는 풍광을 그려 놓은 후, 한곳에 자리를 잡거나 계속 이동하면서 그 풍광이 나올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렸다가 마침내

2) 공자 저, 성백효 역, 『논어집주(論語集註)』, 전통문화연구회, 1993, 77쪽, 306쪽.

그 순간이 오면 셔터를 누르는 것이다.

그가 험혈단신으로 오직 카메라와 필름만을 지닌 채, 외지인이 살기에는 한없이 거칠고 냉혹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지없이 부드럽고 따뜻한 이 섬에 등지를 틀고자 몸부림친 것은 바로 일이관지의 과정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는 자신만의 시각과 방식으로 제주의 구석구석을 촬영했으며, 이러한 작업을 통해 섬의 모순과 흠결조차도 이해하고 포용하고자 했다. 그에게 있어 '제주에서의 사진 작업'은 '일이관지(一以貫之)'에서의 '일(-)'이었으며, 그가 뚫고자 했던, 알아가고자 했던 '지(之)'는 좁게는 제주도와 제주인, 더 넓게는 세상과 인생이었다.

II. 예술혼의 극대화와 자기 구현

예술혼이란 예술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정신을 뜻한다. 김영갑에게 있어 사진 예술은 생의 반력자이자 분신이었다. 그는 제주에 있는 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사람들이 물으면 세상을 보고 인생을 보았노라고 대답했으며, 진지성이 결여된 질문은 동문서답식으로 받아 넘길 줄 아는 여유를 갖게 됐다. 결국 물질적인 부분에 가치를 둔 세인들의 관심사와 자신이 지향하는 세계는 애초부터 방향이 달랐기에 대꾸할 필요가 없다고 여겼던 것이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제주도에서 김영갑의 촬영은 돈이 안 되는 무의미한 작업의 연속이었다. 그는 가난했지만 상업적인 수단이나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진을 이용하지는 않았다. 사진 작업에 있어서만큼은 자신이 믿는 길을 걷고자 했으며, 한 치의 부끄러움도 용납하지 않았다. 경제적 보탬이 될 만한 일이 들어오거나 세상에 이름을 알릴 만한 기회가 오더라도 자신이 추구하는 예술적 영역이 침범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그만의 고집과 논리를 내세워 차단했다.

세상을 모르는 외골수라는 비난과 인화지조차 살 수 없는 궁핍을 감수하면 서도 그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담아내고자 하는 제주도의 모습이 명확했기 때문이다. 심상에 떠올리고 있는, 다시 기약할 수 없는, 단 한 번의 그 순간을 포착할 때까지 그는 제주의 초원과 오름, 산과 바다에서 풍찬노숙에 버금가는 인고의 시간을 보냈다.

그가 말한 '삼시간의 황홀'이라는 표현에 어울리는 작품들은 이런 과정 속에서 탄생했는데, 이 작품들은 작가의 오감을 거친 후 카메라를 통해 재창조된 풍광이었기에 현지인들조차도 제주도가 맞느냐며 의아해하고 낯설어하는 경우가 있었다.

김영갑이 카메라를 통해서 찍은 제주는 육체의 눈이 아닌 마음의 눈으로 관찰한 결과물이었으며,³⁾ 그렇게 찍은 사진 속에서 그는 자신의 존재를 확인해 나갔다. 그에게 있어 사진 예술은 수행의 방편이자 도구였기에 그는 정직하고 진실한 자세로 피사체를 대면하고자 했으며,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난 간절함을 지니고 촬영에 임했다.

그가 경제적 난관 속에서도 작품 판매와는 무관한, 누구도 초대하지 않는, 디스플레이를 마치면 전시장에 나가지 않는,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개인전을 해마다 열었던 것은 이러한 사진 작업이 그에게는 세파에 떨어진 자신의 본래면목을 찾고, 독자적인 삶을 영위하는 자기 구현의 과정이요, 누가 대신할 수 없는 인생의 여정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이 잘 드러난 대목을 몇 곳 살펴보겠다.

나 자신이 흡족할 수 있는 그 무엇을 느끼고 표현할 때까지는 사진으로 밥벌이하기 위해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으리라고 마음을 다잡는다.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나 자신을 속일 수는 없기에 늘 자신에게

3) 김영갑은 절실히 원하지만 한다고 마음의 눈이 열리지는 않음을, 끝없이 이어지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앞뒤 재지 않고 육신을 내던져 간절히 소망해야만 심안이 열린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영갑, 『오름에서 불어오는 영혼의 바람』, 다빈치, 2015, 83쪽.

진실하려 했다.⁴⁾

김영갑은 경제적 여유보다는 예술적 만족을 우선시했기에 의식주의 해결보다는 필름과 인화지를 구입하는 데 더 신경을 썼다. 적은 돈이라도 벌기 위해서 애쓰다 보면 세상사에 휩쓸리게 되고, 결국 사진을 대하는 자세나 작가의 열정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기웃거리지 않겠다’는 위의 표현에서도 드러나듯이 그는 사진 이외의 일은 외도라 여기며 한눈팔지 않았는데, 이것은 자신의 작업 방향에 대한 인식이 명확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처럼 사진에 대한 신념을 오롯이 지키려는 다짐은 다음 인용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온종일 혼자 지내며 사진만을 생각했다. 일 년 내내 증산간을 떠나지 않고 사진에만 몰입했다. (...) 남들이 굳이 보여달라고 보채면 세상을 보았고 삶을 보았다고 말한다. (...) 그래도 세월이 흐를수록 사진에 몰입해 있는 시간이 즐겁다.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는 시간보다도 작업하는 것이 더 즐겁다. (...) 홀로 사진 찍는 것보다 즐거운 일을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다.⁵⁾

제주도 증산간 마을의 역센 환경에서 그는 ‘물외의 것’으로 구분되며, 버티고 또 버텼다. 토박이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견뎌 내면서 오직 사진만을 생각하며 지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스스로가 만족할 만한 작품이 나오지는 않았다. 아무리 공을 들여도 늘 부족하고 아쉬운 것이 예술이었기에 남들에게 내놓을 만한 것이 없었다. 그래도 굳이 보여 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세상과 삶을 보았다는 말로 대신했다.

4) 김영갑, 『그 섬에 내가 있었네』, Human & Books, 2004, 37쪽.

5) 위의 책, 118-119쪽.

그의 고백처럼 사람의 도리도 있고, 자식 노릇도 못한 채 보낸 세월이 10년이었지만 이렇다 할 만한 결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마음에 그려 놓은 제주의 모습을 카메라로 담아낼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믿었다.

더구나 십 년 동안 버텨온 옹고집을 대변할 사진도 지금 내게는 없다.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분명 오고야 말 ‘그날’을 위해 병어리 냉가슴으로 사진만을 찍사랑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할 뿐이다.⁶⁾

사진 작업을 하는 동안 사람들은 숙박에서 벗어난 듯한 그의 자유로운 삶에 부러운 시선을 보내기도 했고, 반대로 괴이하게 생각하거나 동정하기도 했다. 다양한 반응들 앞에서 그는 고집스런 자신의 작업을 일일이 설명하기보다는 ‘내가 미친놈이라서...’라는 자학조의 말로 그들의 궁금증과 질문 공세를 차단했다.

그의 사진은 사람들이 원하는 극적인 감동을 선사하지는 않았기에 대중의 주목을 끌기가 어려웠다. 그는 꽃을 찾아드는 벌과 나비처럼 말없이 감동을 줄 수 있는 사진, 주변에 펼쳐진 흔하디흔한 소재들을 통해 섬의 아름다움과 신비를 이야기한 사진을 찍고자 했다.⁷⁾ 그가 추구했던 사진 세계는 자연과 혼연일체가 되었을 때 기약할 수 있는 차원의 것이었기에 제주의 초원과 오름에서 홀로 인고의 시간을 거쳐야만 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세간의 관심이나 평론가의 인정을 목표로 작업하는 편이 더 쉬웠을 수도 있다.

위에서 언급된 ‘병어리 냉가슴’이라는 표현처럼 제주에서의 사진 작업에는 고민과 혼돈이 수반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 해결책 역시 아래 인용문이 말해주듯 제주에 있었다.

6) 위의 책, 96쪽.

7) 위의 책, 180-181쪽.

작업에 몰입하다 보면 어느새 탄력이 붙는다. 그러다 예상치 못한 순간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다.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확신했던 것들이 불확실로 변하면서 마음이 혼란 속에 빠져든다. (...) 그럴 때는 다시 들판으로 나가 노인들을 지켜본다. 시련을 견뎌낸 그들의 삶을 들여다본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혼란스러움이 사라진다.⁸⁾

사진만을 생각하는 순조로운 작업 중에도 문득 난관에 직면하곤 했다. 그에 게는 작가로서의 변민이나 작업 방향에 대한 회의감이 생기더라도 고민을 나눌 대상이 없었다. 그럴 때면 들판에서 일하는 제주 노인들을 바라보며 답을 찾아야 했다. 척박한 환경과 온갖 시련 속에서도 자신의 입에 들어가는 것은 스스로가 해결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그는 자신의 작업이 나아갈 방향을 거듭 확인했다.

그의 마음을 어지럽힌 것은 결국 자기 확신의 문제였기에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고민이 아니었다. 그는 작업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잡념 없이 오로지 본인의 삶에만 집중하는 노인들의 모습에서 자신이 갈 길을 확인했고, 다시 작업에 몰두할 힘을 얻었다. 이러한 자기 정립의 과정 속에서 그의 사진 세계는 김영갑만의 색채를 더해 갔다.

그는 제주에 정착함으로써 섬과 하나가 되고자 했다. 사진을 찍기 위해 잠시 방문하고 지나가는 객의 위치가 아니라 진정한 제주인의 자리에서 제주의 모습을 담아내는 데 인생을 걸었다. 아래 인용문에서 그 예술혼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

흐린 날이라도 바람 많이 부는 날에는 일이 분 동안 햇빛을 볼 수도 있다. 그 일이 분을 위해 사나흘 동안의 기다림을 감수하다 보면 가슴

8) 위의 책, 162쪽.

뛰게 하는 풍경과 마주할 수 있다. (...) 사진 속에 표현된 분위기는 사진가의 감정(마음)을 통과한 선택된 분위기다. 사진은 사진가의 감정(마음)을 통과해 해석된 분위기이다. (...)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못할 것 같은 평범한 풍경이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풍경을 떠올리고 그 순간을 기다리다 보면 실제로 자신이 원하는 사진을 얻을 수 있다.⁹⁾

제주의 자연과 일체가 되어 호흡하는 가운데 마음에 그려 놓은 풍광이 나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정도로 그의 작업은 기다림의 연속이었다. 만약 심중에 떠올리는 이미지 없이 그저 기다리기만 하다가 갑자기 나타난 광경이 마음에 들어서 촬영하고자 한다면 그 장면은 놓치기 십상이다. 왜냐하면 ‘삼시간의 황홀’은 눈 깜박할 사이에 나타났다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의 기다림은 자연의 순환 법칙과 우주의 운동 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전제로 했다. 그는 자연에 대한 이해 없이는 몇 달을 기다려도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했다. 단어 하나, 선 한 줄에 고뇌하는 예술가처럼 사진가는 셔터 한 번을 누르기 위해 고통의 시간을 참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철학이었다.¹⁰⁾

이처럼 그는 자신이 찍고자 하는 풍광을 마음속에 그려 두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자연이 그 장면을 연출하면 셔터를 눌렀다.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를 찰나의 한순간을 위해 쉽 없이 대기하는 것이 제주에서 그가 선택한 숙명이었다.

그에게 있어 제주의 풍광은 나날이 새로워지는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의 대상이었기에 다음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 20년의 세월을 기다림으로 일관할 수 있었다.

날마다 사진을 찍는 나는 날마다 사진만을 생각합니다. 사진을 찍는

9) 위의 책, 133-135쪽.

10) 김영갑, 『섬에 흘러 필름에 미쳐』, 하날오름, 1996, 175쪽.

일에 몰입해 홀로 지내는 동안, 그리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내 존재가 잊혀져갈지라도 나의 사진 작업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늘의 변화에 따라 내 마음은 변화하고 마음의 변화에 따라 어느 한곳을 찾아갑니다. 같은 곳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찾아가지만 늘 새로움으로 다가옵니다. (...) 내 마음은 늘 변화했고 그 변화를 필름에 담습니다. 그 시간이 하루 중 제일 소중한 시간이기에 홀로 지내며 그 순간만을 기다립니다. 기다림은 매일매일 반복됩니다. 자연이 전해주는 메시지를 통해 나의 내면도 성장했습니다. 변화를 거듭하는 동안 마음은 중심을 잡았고,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얻었습니다.¹¹⁾

그가 생각하는 사진 예술의 관건은 장소가 아니라 피사체를 대하는 마음에 있었다. 사진을 통해 그가 붙잡아 두려 했던 풍경은 누구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니라 시시각각 모습을 달리하는 들판의 빛과 바람, 구름, 비, 안개와 같은 것들이었다. 그는 사람의 감정도 고여 있지 않고 변화를 거듭해 가듯 자연의 모습도 매 순간이 다르기에 일 년을 같은 장소에서 바라보아도 늘 새로운 것이 자연이라고 생각했다.¹²⁾ 김영갑 사진의 신비, 제주의 토박이 들조차도 낯설어 하는 풍경은 이런 가운데서 탄생했다.

사진을 통해 자연의 메시지를 얻어 가면서 그의 내면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제주에서 해보고자 했던 사진 작업에 대한 불안감이 확신감으로 변해 가면서 섬에서의 고독한 작업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심적 여유와 추동력을 얻었다.

이러한 확신이 들었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고민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사진과의 본격적인 승부는 오히려 그때부터가 시작이었다. 그에게 있어 사진 작업은 고험(苦海)라는 인생의 축소판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런 어려움이 드러난 대목을 한 곳 살펴보겠다.

11) 김영갑, 앞의 책, 2004, 166-167쪽.

12) 위의 책, 2004, 180-181쪽.

사진은 일 초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승부를 거는 처절한 싸움이다. 한번 실수하면 그 순간은 영원히 다시 오지 않는다. 특히 삼시간의 황홀은 그렇다. 잠냄에 빠지면 작업에 몰입하기 힘들다. 눈앞에 펼쳐지는 황홀함은 삼시간에 끝이 난다. 그 순간을 한번 놓치고 나면 다시 일년을 기다려야 한다. 일년을 기다려서 되는 거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기다려도 되돌아오지 않는 황홀한 순간들도 있다.¹³⁾

그의 사진 작업은 겉으로 보기에는 유유자적 한가하게 돌아다니는 중에 진행되는 듯하지만 실상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토록 원하던 장면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모든 감각을 곤두세운 채 자연을 응시해야만 했다. 그가 말한 ‘삼시간의 황홀’은 오직 한 번밖에 기약할 수 없는 찰나의 순간을 찍은 결과물이었다. 그래서 그의 작품에는 대상에 대한 예민한 직관력과 자연 친화적인 감수성, 그리고 제주의 인문과 자연에 대한 깊은 통찰력으로 포착한 건강한 아름다움이 배어 있다.¹⁴⁾

사진 작업은 선정(禪定)에 들기 위해 잠시도 화두를 놓을 수 없는 참선처럼 긴장감으로 충만했을 때에만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언제 올지 모를 그 순간을 위해 하염없이 기다린다는 점에서 사진 작업과 화두 참선은 공통점이 있었다. 이처럼 사진을 향한 그의 열정은 자신이 선택한 인생에 대한 집중이기도 했다. 그는 사진을 통해 남들이 무심히 보아 넘겼던 제주의 속살을 발견해 나갔으며, 동시에 자신의 본래면목에 다가서고 있었다.¹⁵⁾

13) 위의 책, 242-243쪽.

14) 김현돈, 「머언 그리움의 흔적-사진가 故 김영갑의 삶과 예술을 되돌아보며-」, 『김영갑-김영갑 5주기를 추모하며-』, Human & Books, 2010, 84쪽.

15) 김영갑은 제주도 사람 누구나 알고 있는 아름다움이 아닌 꼭꼭 숨어 있는 속살을 엿보려면 온몸으로 바람을 느끼고 이해해야 함을, 제주도의 역사는 바람과 싸워온 투쟁의 역사이기 에 바람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제주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 없음, 그리고 자신의 내면에서 부는 바람을 어찌지 못해 전국을 떠돌다가 바람 타는 섬 제주에 정착했음을 얘기했다 (김영갑, 앞의 책, 2015, 12쪽, 18쪽, 22쪽).

사진 작업을 통해 스스로를 알아가고자 했다는 점에서 그에게는 사진이 인생의 본질에 접근하기 위한 방편이자 화두였다. 다음 인용문에서도 그런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꿈과 현실 사이에서 정처없이 방황하며 덧없이 세월만 보냈다. 카메라를 들고 열심히 돌아다닌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일이 아니다. 좋은 사진을 찍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마다 사진이란 무엇인가를 곱씹어 본다. 그때마다 금세 미로 속으로 빠져드는 나를 발견한다. 자연 속에서 지내다 보면 감질나게 깨달음의 순간들이 다가온다.¹⁶⁾

그는 사진 작업을 하면서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했다. 무턱대고 사진만 열심히 찍는다고 기대했던 결과가 찾아오는 것은 아니었기에 결과의 유무를 떠나서 사진을 현상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스스로를 위한 작업이라고 여겼다.¹⁷⁾ 하지만 덧없이 흘러간 세월의 무상함을 떠올리다 보면 사진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진에 매달리는 이유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과 마주하게 되었다. 물음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미로 속을 헤매다 보면 그 답은 자연에 있었다.

간간이 찾아오는 각성의 순간들은 제주의 들과 오름을 누비는 그에게 삶의 철리를 가르쳐 주었다. 그는 자연 속에서 채워 나간 것들을, 매년 전시회를 통해 비워냄으로써 인간적 성숙을 도모해 갔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의 확고한 사진 철학은 스스로가 정한 인생 항로에 대한 믿음이기도 했다.

사진 작업을 통해서 자신만의 인생을 구현하고자 한 그의 시도는 다음 인용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6) 김영갑, 앞의 책, 1996, 184쪽.

17) 위의 책, 184쪽.

나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사진가들과는 시대도, 환경도, 가치관도 다른 데 그들을 흉내내고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부끄럽고 고통스러웠다. 그들의 작품이나 이론으로 시작한 내가 그들의 영향에서 벗어나 사진가로서 홀로 서기에는 처절한 자기 희생을 치르고 난 후에 가능했다. 사진가로서 독창적인 미학이나 이론을 확립하고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가지려고 오랜 시간 섬만을 작업하고 있다.¹⁸⁾

그는 학창 시절부터 세상과 학교가 제시하는 판에 박힌 듯한 인생행로를 따르지 않았다. 독자적인 길을 걷기 위해 “철학이나 사상은 생활 경험에서 얻어진다.”는 알베르 카뮈의 말을 가슴속에 품고서 세상을 알아 가고자 떠돌았지만 거듭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혼란만 커져 갔다. 결국 섬이라는 한정된 세계에 진득하게 머물면서 작업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완성해 나가는 쪽으로 선회했다.¹⁹⁾

비록 섬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의 작업이지만 그 깊이를 더해 감으로써 온 세상을 이해하는 데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신념은 바로 하나로써 모든 것을 꿰뚫는다는 일이관지의 정신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제주라는 섬을 통해 세상을 보고자 했으며, 섬에서 자신의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다른 작가들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런 점에서 섬을 찍는 사진가로서의 홀로서기는 그가 줄곧 지향해 온 독자적인 인생행로의 개척이기도 했다.

18) 위의 책, 190쪽.

19) 위의 책, 124-126쪽.

Ⅲ. 의도된 고립과 몰입의 이중주

누구에게나 양보할 수 없는 자신만의 세계가 있는 법인데 특히 예술가에게는 이런 부분이 절대적인 경우가 많다. 김영갑 역시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지향이 뚜렷했는데 이것을 향한 집착과 고집은 결별과 고립으로 이어졌다. 사랑하는 이를 선택하는 대신 제주도에 정착한 일이나 가족과 사회로부터 떨어져 나와 소외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은 모두가 그의 의지에서 나온, 의도된 결정의 결과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세이 속에는 이성과의 인연에 얽힌 일화나 결혼을 하라는 제주 노인들의 채근이 빈번히 등장하는데 이것은 가정을 이루고 그 속에 안착하고 싶은 바람, 무난하고 평범한 삶에 대한 동경이 그의 마음 한편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 없음을 알았기에 그는 사람과 세상에 대한 그리움을 제주와 사진에 대한 열정으로 승화시켜갔다.

사진에만 전념해서 목표한 바를 이루려면 몰입의 시간이 필요했는데, 이런 그에게 있어 고립은 대상에 대한 전적인 집중을 위해 사전에 준비해 두어야 할 정지(整地) 작업으로서의 의미가 있었다. 그가 계획한 제주에서의 사진 작업은 몇 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바친다 해도 완성을 기약할 수 없는 일이었다.

고도의 정신적 집중과 몰입, 육체적 고통과 인고, 경제적 궁핍의 상태를 장기간 견뎌 내기 위해서는 그의 성격상 자발적인 고립 외에는 마땅한 선택지가 없었다. 그에게는 누군가의 지지와 동행이 절실했지만 그는 그런 인연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철저히 혼자이고자 했다. 하지만 그도 인간이었기에 아무런 이론 것도 없이 홀로 떨어져 나와 있다는 격절감에 시달리곤 했는데 그럴 때 찾았던 곳이 국토 최남단 마라도였다.²⁰⁾ 세속적 성공과는 동떨어진 자신의

20) 김영갑은 마라도에서 사진 작업을 하는 동안 아침과 저녁 시간을 정해서,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과 선택에 마음이 흔들릴 때면 본인과 너무나도 닮은꼴인 섬, 마라도의 수직 절벽에 서서 심신을 가다듬기도 했다.

이처럼 김영갑 역시 여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외로움을 땀으며, 자신이 선택한 삶에 힘겨워도 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제주의 자연과 사진 작업을 통해 그러한 고비를 넘길 줄 아는 본인만의 지혜와 방식이 있었기에 원하는 작업을 이어 갈 수 있었다. 그의 사진 예술은 고립과 몰입이라는 두 악기의 앙상블이었다.

제주도에 들어오기 전부터 작가 김영갑의 일생은 자발적인 이탈의 연속이었다. 사람들 틈에서 벗어나고자 했으며, 사진작가로서 성공할 기반이 될 만한 공모전에도 마음을 두지 않았다. 획일화된 교육에 따른 획일화된 사고와 상상력의 빈곤을 거부했으며, 적당히 타성에 젖어서 살아야 하는 도시 생활을 힘들어 했다. 기성세대로부터 주입받은 지식이나 지혜는 자연 속에서 그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데 걸림돌이 될 뿐이었다.²¹⁾

(가) 돌이켜보면 나만큼 구속받기 싫어하고 혼자인 것에 익숙한 사람도 드물겠다. 제주도에 정착하기 오래전부터 나는 독립의 기회만을 노렸다.²²⁾

(나) 공모전을 생각하고 사진작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진을 찍다 보니 순수하게 사진에 몰입하기 어려웠고, 그렇게 찍은 사진 또한 다른 사진가들의 것과 비슷했다. 그 후로는 공모전도 사진작가의 길도 포기했다.²³⁾

동일한 필름으로 매일 작업하는 등 사진의 심오한 세계를 터득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했다 (김영갑, 『마라도』, 눈빛, 1995, 127쪽).

21) 김영갑, 이생진, 『숲 속의 사랑』, 우리글, 2010, 64-67쪽.

22) 김영갑, 앞의 책, 2004, 222쪽.

23) 위의 책, 129쪽.

중학교에 입학한 그는 친척 집에서 몇 달을 지냈지만 온갖 핑계를 대고 하숙을 시작했으며, 고교 시절에는 형들의 간섭을 피해 도서관, 친구 집, 학교 연극반에서 생활했고, 졸업 후에는 가족을 떠나 독서실에서 지냈다. 그는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견디기 힘든 억압감을 느꼈으며, 철저히 혼자가 되고자 했다. (가)에서의 고백처럼 어린 시절부터 그는 구속받지 않는 삶을 위해 안락한 의식주를 포기할 수 있었다.

이런 성향은 (나)에서 알 수 있듯이 사진을 찍는 데서도 나타났다. 그는 제주 입도 전 몇몇 전람회에서 입선을 했으나 공모전을 의식하고 촬영하다 보면 자신의 생각대로 작업하기 힘든 한계가 있었기에 제도권에서 인정받는 길을 단념했다. 대오에서의 이탈은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미지의 세상으로 그를 인도했지만 결국 이 선택이 지금의 김영갑과 갤러리 두모약을 있게 한 것은 분명하다.

세상의 대열로부터 벗어난 그가 정착을 결심한 지역은 남쪽 끝에 위치한 제주도였으며, 특히나 사랑한 곳은 최남단 마라도였다. 하지만 그가 고백했듯이 풍경이 환상적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원하는 작업을 하기에 제주도는 여건상 어려움이 많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고집한 것은 '느낌이 강한', 눈에 보이지 않으나 분명 우리의 감성을 향해 열려 있는 자연의 섬이 제주도였기 때문이다.²⁴⁾

“외진 섬 귀퉁이에 풀씨로 날아와, 척박한 토양에 뿌리 내릴 때만 해도, 건듯 불다가 그칠 바람인가 했었네. 하필이면 여기였을까 그는, 어디든 깃들여 못 살리 없겠지만, 먼 곳을 돌아 마침내 닿은 유배 일 번지에서 토종으로 살고자 했네.”²⁵⁾라는 시구처럼 그에게 제주도는 스스로가 선택한 유배지였다.

(가) 섬에 등지를 튼 순간부터 외톨박이로 지냈다. 서울을 떠나기 전

24) 김영갑, 앞의 책, 2015, 53쪽.

25) 강덕환, 「이 섬에 그가 있었네-두모악 김영갑을 얘기함-」, 『열린시학』 26(1), 2021, 220-221쪽.

에 맺었던 인연들마저 모질게 끊었다. 주인집에 전화가 있었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누구에게도 번호를 발설하지 않았다. 견딜 수 없을 만큼 처절하게 내 자신을 몰아갔고, 철저하게 외부와 단절시켰다. 섬에서 지내는 동안 알게 된 사람들도 의도적으로 피했다.²⁶⁾

(나) 사진에만 매달리다 보니 해를 거듭할수록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과도 멀어져갔다. 그래도 바느질에 열중하다 보면 혼자라는 사실을 잊을 수 있어서 좋다.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달래야 할 때는 바느질감부터 찾는다. 울적한 날에는 바느질이 최고다.²⁷⁾

작정하고 감행한 이주였기에 섬에서의 생활은 고립을 가속화시켰다. 그는 섬에 들어온 뒤 모든 인간관계를 차단함으로써 다시 한 번 더 고립되고자 했다. 하지만 그도 사람인지라 어쩌다 방문객이 왔다 가고 나면 그들과 함께한 즐거움의 여운 때문에 한동안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후유증을 앓았다. 남겨진 자의 외로움을 겪으며, 그는 여행객들에게 정을 주지 않는 토박이들의 심정을 헤아리게 됐다.²⁸⁾

고립에 따른 외로움과 경제적 난관은 그로 하여금 사진에 집중하도록 하는 자극제가 되었지만 불안감도 가중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돈이 안 드는 바느질은 울적함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었다. 버려진 천 조각을 모아서 한 땀 한 땀 깎다 보면 불면의 밤도, 혼란스런 마음도, 세상사 온갖 시름도 사라졌다.²⁹⁾

자신만의 사진 작업에 집중하고자 세상과 단절한 채 가난한 전업 작가의 길을 선택했지만 세상으로부터의 유혹은 끊임없이 다가왔고, 그는 자기 점검을 멈추지 않았다.

26) 김영갑, 앞의 책, 2004, 68쪽.

27) 위의 책, 65쪽.

28) 위의 책, 149쪽.

29) 위의 책, 62쪽.

(가) 전화를 반납했다. 어떤 편지에도 답장을 쓰지 않았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피했다. 처음에 그랬듯이 외로움 속으로 내 자신을 몰아갔다. 외로움을 잊기 위해 온종일 들판을 걸었다. (...) 절로 흥이 나서 몰입하다 보면 불현듯 원하던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 언제일지 몰라도 그 때를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으자.³⁰⁾

(나) 독하게 마음먹고 사진에만 몰입하자고 마음을 거둬 다독였다. 온몸을 내던져 쓰러질 때까지 하나에 몰입해보자. 남들이 인정할 때까지 아니라, 나 자신이 만족할 때까지 몰입해보자. 누구도 이야기한 적이 없는 아름다움을 두 눈으로 확인해보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신비로움을 온몸으로 느껴보자.³¹⁾

신문 방송에 몇 차례 이름이 오르내리자 밖에 나가면 그를 알아보는 이들이 생겨났고, 전국에서 편지가 날아들고, 전화벨이 수시로 울려댔다. 서울을 오가고, 시내 출입을 하는 동안 사진 작업을 거르는 날도 늘어났다. 게다가 평소의 그는 가까운 사이라도 집에서의 만남을 피할 정도로 노출을 꺼렸는데, 어느 순간 집으로 방문하는 손님들이 많아졌다.³²⁾ 제주에 정착하기까지의 험난한 과정과 비장한 결심이 퇴색되어 가고 있음을 그는 감지했다.

남들로부터 받는 인정과 인기에 도취해서 한 해를 보내고 있는 동안 제주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었다. 그가 제주에 정착한 의미와 작가로서의 존재의의를 회복할 길은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혼자만의 작업에 몰두하는 것이었다.

위의 인용문에는 세상의 환호에 흔들리는 모습을 경계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그는 고독한 몰입의 상태로 거둬 자신을 몰아붙임으로써 남들은 보지 못한 제주의 신비에 다가서기를 희구했다.

30) 위의 책, 180쪽

31) 위의 책, 177-178쪽.

32) 위의 책, 178쪽.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를 포기한 그의 관심은 온통 사진 작업에 집중되었다. 때로 세상사에 관여하는 일도 있었지만 이로 인해 상처를 받기도 했기에 세상사와 더욱 담을 쌓았다.

(가) 구름이 많을지, 안개가 짙을지, 비가 올지 날씨 변화만을 헤아릴 뿐, 내 나이가 몇인지, 생일이 언제인지도 관심 밖이다. 지금까지 내 생일을 기억하고 지낸 것은 세 번 정도다. 나는 어떤 친목 모임에도 참석한 적이 없고, 가까운 이들의 경조사를 챙겨본 일도 없다. 오로지 사진 하나에만 매달려 살아온 행복한 세월이었다.³³⁾

(나) 사람들 속에서 튕겨져 나와 유별나게 살다보니 늘 외로웠다. 낮이면 정신없이 초원으로 오름으로 싸돌아다니며 카메라의 셔터를 누르고, 밤이면 찍은 원고를 들여다본다. 외로움을 느낄 짬도 없이 분주하게 사진을 찍다보면 잡생각이 끼어들지 않아 마음이 평화롭다.³⁴⁾

애경사를 챙기며 서로 교류하고 정을 쌓아 나가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도리에 속한다. 하지만 그는 이런 류의 도리는 물론이고, 자신의 생일조차도 잊고 지냈다.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혼자 떠돌며, 그들의 바람과는 동떨어진 일만 하다 보니, 어쩌다 만나더라도 서로가 어색하고 서먹한 만남으로 끝났다.

그나마 유지되던 이런 관계도 세뱃돈을 외상하는 삼촌에게는 세배를 안겼다고 울어대는 어린 조카를 보며, 지갑에 먼지만 가득한 그를 부담스러워 하는 친구들을 보며 주변 사람들과 스스로 연락을 끊음으로써³⁵⁾ 평범한 인간사에

33) 위의 책, 242쪽.

34) 김영갑, 앞의 책, 1996, 9쪽

35) 위의 책, 145-146쪽.

서 벗어난 삶을 살아갔다. 오히려 이러한 단절이 그에게는 사진만을 생각하며 살아갈 바탕이 되었다.

단절과 고립에 수반되는 외로움은 오히려 그가 감당할 몫이었다. 그는 제주의 들과 오름을 누비고 다님으로써 고독한 심사를 사진 작업으로 승화시켰고, 밤낮으로 작업에 몰두하면서 고립과 몰입이라는 자신만의 작업 방식에 적응해 갔다.

예술에 대한 열정과 근성은 그로 하여금 제주에서 자신만의 사진 세계를 펼쳐 나가게 했지만 가족과 연인에게는 고통을 안겨 주었다.

(가) “나는 술 대신 예술에 취해 있을 거야. 예술은 술보다 몇 배 더 무서워. 한번 취하면 목숨마저 우습게 여겨지거든. 나는 아버지보다 더 무능력한 남편으로 살게 될 거야. 예술에 취하지 않고는 내 명대로 살지 못해. 근성 있는 쟁이가 되겠다고 늘 소망했으니까.”³⁶⁾

(나) 나는 섬의 오지를 찾아다니며, 초가집, 돌담, 팽나무, 노인, 아이, 해안 마을, 중산간 마을, 초원, 바다, 오름을 닦치는 대로 필름에 담았다. 섬으로 떠나오기 전, 섬의 역사와 작업할 것들을 나름대로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바로 작업에 들어갈 수 있었던 탓이다. 낮에는 촬영하고, 밤이면 현상을 한다. 비가 오는 날이면, 온종일 집에 틀어박혀 인화 작업을 했다.³⁷⁾

결혼은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임을 그는 알았다. 하나에 미쳐 버리는 예술에의 열정은 멀리서 보면 아름답지만 곁에서 지켜보는 이에게는 영혼을 파멸시킬 수도 있는 고통임을 근거로 들어 사랑하는 여인을 설득하려 했다.³⁸⁾

36) 위의 책, 121쪽.

37) 위의 책, 25쪽.

또한 그의 방랑벽과 사진에 대한 집착은 평생을 술로 괴롭혔던 부친 못지않게 모친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결국 그는 사랑하는 여인을 떠나 제주로 왔으며, 안정되게 사는 자식의 모습을 간절히 원했던 모친의 소원을 들어 드리지도 못했다.

그는 섬에 들어오기 전 제주에서의 작업을 위한 리허설 격으로 맹인들을 대상으로 사진 작업을 했으며, 제주의 역사를 자신의 시각으로 정리했고, 섬에서 작업할 목록들을 세세히 기록했다.³⁹⁾ 철저히 준비했기에 그는 섬에 정착한 후 거침없이 작업을 해 나갈 수 있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선택한 길이었던 만큼 주간엔 촬영하고, 야간에 현상하는 반복된 생활 속에서도 그는 지치지 않는 집중력을 발휘하며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만들어 갔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 “나는 행운아야. 선택받은 삶이지. 난개발 이전의 제주를,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길 없이 아름다운 제주를 사진에 담을 수 있었으니 말이야.”라고 했던 그는 제주를 사랑하다 스스로 사람들 사이에서 섬이 되어 버렸다.⁴⁰⁾ 루게릭병을 진단 받은 후에도 그는 가족들의 보살핌을 부담스러워 했다. 누이의 눈물을 뒤로 한 채 제주 노인들의 삶에서 답을 찾으며 자신의 작업을 이어갔다.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잊기 위해 노력했다. 평상심을 유지하기 위해 태양이 뜨기 전부터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다. 카메라를 잡을 수 없으니 사진 대신 하루를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소일거리를 찾았다. 그것이 바로 사진 갤러리를 꾸미는 일이었다. 하나에 몰입해 있는 동안은 평상심을 잃지 않았고 잠자리도 편안했다.⁴¹⁾

38) 위의 책, 121-122쪽.

39) 위의 책, 119쪽.

40) 손세실리아, 「두모악에 전하는 안부」, 『김영갑-김영갑 5주기를 추모하며-』, Human & Books, 2010, 131쪽.

41) 김영갑, 앞의 책, 2004, 239-240쪽.

아픈 그를 걱정하는 가족들의 방문이 있을 후 그는 전화기를 얹어고 밤에는 휴대폰을 껐다. 형제들의 서운함과 심적 고통을 외면한 채 처음 제주에 왔을 때 혼자였듯이 끝도 혼자이고자 했다. 그는 제주의 노인들이 그랬듯이 최후의 순간까지 자신의 일을 놓지 않았다. 갤러리를 꾸미는 작업은 더 이상 사진을 찍을 수 없는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갤러리 건립이라는 최후의 작업에 몰입하기 위해 그는 죽음 앞에서도 가족들의 손을 잡지 않았다. 자신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누이와 형제들을 보며, 그는 가정을 꾸리지 않은 자신의 처사가 현명했다고 여겼다. 자신의 인생 패턴에 변화를 원하지 않았기에 그는 마지막까지 몰입을 위한 고립의 기초를 일관되게 유지했다.

IV. 응답으로 다가온 구원과 소진

제주도에서 보낸 김영갑의 일생은 응답에 대한 갈구와 기다림의 시간이었다. 그가 기다린 응답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인정과 평가가 아닌 자기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각성과 자각이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세상이 알고 싶어 떠도는 삶을 동경했으며, 그것을 위한 방편으로 사진을 택했다. 사진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중학교 시절부터 현상과 인화 등 암실 작업을 배울 정도로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목표 의식과 실천 의지가 분명했다.

마침내 그는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부분을 단념하고 제주와 사진을 선택했다. 한없이 넓은 세상을 방랑하는 대신 제주에 집중하고자 결심한 것이다. 사진을 통해 제주의 진면목과 토박이들의 자취를 속속들이 남기고자 한 그의 작업은 예상과는 달리 정착 과정에서부터 오해와 갈등 상황에 봉착하기도 했다.

해안 마을, 중산간 마을, 섬의 동서남북을 떠돌면서 다양한 삶과 세상을

마주했으며, 누구의 간섭도 없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동안 이제껏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던 것들이 양파 껍질처럼 벗겨져 나갔고, 삶의 진수가 신비로움을 드러냈으며, 마음의 평화가 서서히 찾아왔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는 자신의 사진 작업에 대한 응답이 오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⁴²⁾

응답을 향한 그의 사진 작업은 세월의 무게가 더해 갈수록 제주의 본래면목에 점점 더 다가서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의 육신은 그동안의 혹사에 응답이라도 하듯 소진되어 가고 있었다. 기구한 운명을 타고나 이슬처럼 사라질 것이라는 노스님의 예언처럼 그는 루게릭병을 진단받았고, 본인의 말처럼 작업량에서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경지였기에 무려 20만 장의 사진과 필름을 남겼는데, 그는 이것을 자신보다 더 사랑하고 아껴 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건강이 악화된 후 사진 촬영에 마침표를 찍어야 했던 김영갑은 이 사진들을 전시하고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데 마지막 남은 힘을 쏟았으며, 그 결과 자신의 이름을 건 갤러리를 완성할 수 있었다. 갑작스레 찾아온 병은 그의 사진 작업에는 제동을 걸었지만 이것은 도리어 갤러리 건립이라는 결실을 보게 했다. 만약 육체적 소진이 없었더라면 그는 계속 촬영을 다녔을 것이고, 아마도 <김영갑 갤러리 두모약>은 지금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⁴³⁾

이 갤러리가 주는 감동은 궁핍과 병고에 시달리면서도 초지일관했던 사진 작가가 더 이상 물러날 곳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만들었다는 사실에 있다. 김영갑의 사진 인생은 갤러리 두모약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두모약은 그에게 구원의 증거가 되어 주었다. 20년간 수행한 사진 작업에

42) 김영갑, 이생진, 앞의 책, 2010, 99-100쪽.

43) 이용규, 고동우의 『농촌 폐교의 문화시설로의 활용을 위한 기초적 연구-김영갑 갤러리 두모약 미술관을 대상으로』,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15(2), 2013, 83-90쪽에서는 지역 문화 시설로서 주목받고 있는 <김영갑 갤러리 두모약>을 사례로 들면서, 폐교를 문화 시설로 활용하는 과정을 공유(共有)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러한 의미의 공유는 김영갑이 원했던 대중과의 소통이기도 했다.

대한 응답으로 다가온 구원과 소진의 미학은 작가 김영갑을 이해하는 바탕이 된다.⁴⁴⁾

한라산 중턱 표고버섯 재배 막사에서 한 해를 보내며, 그는 농장을 관리하는 범상치 않은 노인의 삶에 매혹되었다. 하지만 50년이 넘는 세월을 산에서 살아온 노인은 그의 관심을 물리치며, 여기서의 생활이 결국 어떤 종착지로 향할지를 그에게 끊임없이 경고했다.

(가) “산은 요사스러워서 사람을 홀리는 법이며, 한번 홀리게 되면 절대로 산을 떠나지 못해. 산에 맛 붙이고 인생 망치지 않은 놈 못 봤어.” 노인의 걱정은 반은 험박이었다. (...) 노인은 산중 생활에 빠져 일생을 망쳤던 사람들의 얘기를 줄줄이 꿰었다. 남들에게 뒤쳐져 머지않아 후회할 게 뻔하다고 마주칠 때마다 잔소리를 해댔다.⁴⁵⁾

(나) 기구한 운명을 타고나 반짝이는 한 순간도 없이 끝이 날거라는 나의 삶이지만, 내 인생을 즐기려 한다. 관상쟁이나 용한 점쟁이의 예언이 적중한다 해도 미우나 고우나 나의 삶이기에 애지중지 보듬으려 한다. 어느 누구도 주시하지 않을 나의 삶이지만 풀값을 떨면서라도 내 삶에 최선을 다하리라.⁴⁶⁾

표고 농장에서는 한 해를 채우고 나왔지만 그는 계속해서 외부와 접촉을

44) 일본 학자 이지미 세이치(1915~1970)는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30년에 걸쳐 제주도에 관해 조사한 보고서를 1966년 책으로 출간했는데, 이 책은 근현대 제주학의 원점이 될 만하다는 평가를 받는다.(이지미 세이치 저, 김종철 역, 『제주도-1935~1965』, 여름언덕, 2014) 이와 마찬가지로 김영갑 역시 20년을 훌쩍 뛰어넘는 세월 동안 제주도 사진만을 고집했으며, 그 결과 제주도를 주제로 한 사진을 논할 경우 그는 반드시 언급되는 작가가 되었다.

45) 김영갑, 앞의 책, 2004, 94-95쪽.

46) 김영갑, 앞의 책, 1996, 43쪽.

끓은 채 증산간 마을을 떠돌며 사진 작업을 이어 갔고, 결국에는 노인의 말처럼 루게릭병으로 생을 마감했다. 제주 노인의 삶에서 지혜를 찾고자 했던 그것이지만 이 노인의 간곡한 말은 흘러들었다. 만약 그가 20년간 온갖 신고(辛苦)로 점철된 사진 작업을 하지 않았다면 병을 피할 수 있었을지는 알 수 없다.

힘든 인생을 살다 빛을 보지도 못한 채 떠날 거라는 암담한 예언을 그는 받아들였다. 앞날을 축복해주는 사람은 없었지만 주어진 팔자대로 자신을 소신시켜 가리라 결심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겠지만 풀값을 떨면서라도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리라는 그의 다짐처럼 숙명에 대한 수용과 각오는 그로 하여금 사진 작업에서만큼은 일관된 자세를 견지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누구나 인생의 주인이기를 원하지만 선택에 수반되는 책임과 부담감은 그들로 하여금 익숙하고 편한 길을 택하게 만든다. 타인이 걸었거나 알려 준 길을 인생의 지침으로 삼는 것은 일견 편안해 보이기도 하지만 불안과 위험이 따른다.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인생의 속성임을 알았던 그는 어린 시절부터 독자적인 행보를 견지했다.

(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으면 누군가 다가와 길을 가르쳐준다. 그러면 그가 일러준 대로 가지만 한참을 걷다 보면 점점 높으로 빠져들고 있음을 발견한다. 정신을 차리고 서둘러 제자리로 돌아오면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처럼 쉽게 길을 물어볼 수가 없다. 수없이 반복한 시행착오를 또다시 경험해야 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⁴⁷⁾

(나) 내가 선택한 길이 죽음으로 치닫는 지름길이라 하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선택한 길이기 그 길을 웃으면서 갈 것이다. 길을 가다 보면 두 갈래 세 갈래 갈림길이 나온다. 이제는 망설임

47) 김영갑, 앞의 책, 2004, 190쪽.

없이 나만의 길을 선택할 것이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갈림길이 나타날 때마다 두려움에 혹은 절망감에 망설였지만, 이제부터 주저 없이 내 마음이 원하는 길을 갈 것이다. 이제 자신 없이 누군가에게 길을 묻는 일도 없으리라.⁴⁸⁾

무리에서 벗어나 홀로 가는 길은 스스로가 개척해야 할 미지의 길이기예 예상치 못한 사건들로 가득하기 마련이다. 거둬되는 시행착오 속에서 사진에 서만큼은 나만의 방식을 찾았다는 깨달음의 순간이 왔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고, 그동안 소진된 육신에는 병마가 찾아왔다. 뜻밖의 변고였기에 치료 방법을 찾느라 주변의 말에 3년을 귀 기울였지만 병세는 심해져 갔고, 그는 다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돌아왔다. 어차피 겪어야 할 시행착오라면 본인의 의지대로 선택한 길에서 경험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처음 병명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당황스러웠고, 믿기 어려웠으며, 육체적 소진이 이토록 빨리 왔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 후 치료를 위해 3년 동안 전국 곳곳을 다녔고, 남들이 권해주는 치료법을 모두 실천했지만 차도가 있기는커녕 병세는 악화일로에 있었다. 백약이 소용없음을 깨달은 그는 병을 끌어안기로 했으며, 어떤 식으로든 결말을 맺게 해 줄 세월에 모든 것을 맡기기로 했다.⁴⁹⁾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세상이 내 품안에 있는 것 같지만, 중국에는 고스란히 남겨놓고 홀로 떠나야 함을 알았기에, 그리고 그 순간에 비로소 삶의 실체가 제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을 평소 깨달았기에⁵⁰⁾ 마침내 그는 병을 초연(超然)히 받아들일 수 있었다.

젊은 시절 불길한 운명 예언을 받아들인 것처럼 현대 의학으로는 치료가

48) 위의 책, 210쪽.

49) 위의 책, 191쪽.

50) 김영갑, 이생진, 앞의 책, 2010, 79쪽.

불가능하다는 병을 포용했다. 그동안의 사진 작업에 대한 첫 번째 응답이 이처럼 죽음에 대한 예고로 다가온 이상, 이제 그가 기대할 수 있는 남은 응답은 구원과 위로뿐이었다. 몇 년간의 투병 생활을 거치면서 그는 절망과 구원이 모두 자기 마음속에 있음을 깨달았다.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 없는, 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그는 스스로가 자기 인생에 빛을 밝혀줄 등불이 되기로 결심하고, 서귀포시 성산을 삼달리에 폐교된 삼달초등학교를 임대해서 갤러리 건립을 시작했다. 독자와의 대화에 굶주렸던 그에게 소통되지 않는 예술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다. 자신이 찾은 빛 속에 세속을 넘어서는 자유의 길이 있음을 알리고자 했으나 사람들은 애써 외면했다. 갤러리 건립은 독자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작품에 생명의 입김을 불어넣으려는 그의 마지막 시도였다.⁵¹⁾

(가) 모두들 불가능하다고 만류했지만 사진 갤러리를 만들고야 말겠다는 내 의지를 꺾지는 못했다. 하나에 깊이 몰입하지 않는다면 나는 중환자로서 우울하고 절망적인 하루하루를 보내게 될 것이다. 처음부터 꼭 완성을 목표로 하지는 않았다. 만일 처음부터 완성을 생각했다면 시작도 못했을 것이다. 그저 오늘 하루만, 한 주만, 한 달만, 내 힘이 닿는 데까지만 해볼 생각이었다.⁵²⁾

(나) 나에게 내일이란 기약할 수 없는 시간이다. 허락된 것은 오늘 하루, 그 하루를 평화롭게 보낼 수 있으면 된다. 그러다 보면 아픔도 잊혀진다. 하나에 몰입해 있는 동안은 통증을 의식하지 못한다. 통증을 잊으려고 몰입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 또 다른 하루가 허락되면 또

51) 안성수, 「갤러리의 그 의자」, 『김영갑-김영갑 5주기를 추모하며』, Human & Books, 2010, 138쪽.

52) 김영갑, 앞의 책, 2004, 193쪽.

다른 일을 찾는다. 몰입할 수 있는 일은 끝이 없어서 찾으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하나에 몰입해 있는 동안은 오늘도 어제처럼 편안하다. 하루가 편안하도록 오늘도 하나에 몰입한다. 절망의 끝에 한 발로 서 있는 나를 유혹하는 것은 오직 마음의 평화이다. 평화만이 나를 설레게 한다.⁵³⁾

건강 상태를 고려했을 때 갤러리 건립은 무모한 시도로 보였다. 주위에서는 다들 말렸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처음 제주에 들어올 때도 동의와 찬사를 보내 주는 이가 없었듯이 마지막도 역시 그러했다. 자신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철저히 독립적이고 자조(自助)적인 생각에서 나온 결정이었다. 이미 최후를 각오했고,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에 두려움도 없었다.

주위의 안타까움 속에서 시작한 갤러리 건립은 육체적 소진의 가속화를 더 하는 듯 보였지만 그에게는 정신적으로 구원의 빛이 되었다. 아픈 그를 위로해주는 것은 주위의 염려나 격려가 아닌 몰입이었다. 몰입할 대상이 있는 김영갑은 아프지만 아프지 않았다. 그에게 있어 삼달리의 폐교는 재생과 부활의 공간이었다.

2002년 여름에 공사를 마치고 갤러리를 개관하자 예상과는 달리 관람객은 점점 많아졌고, 그는 자신의 영혼을 뿌리째 뒤흔든 제주의 아름다움이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신명이 났다.⁵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자 팔순의 나이에도 노동을 통해 손수 끼니를 해결한다는 제주 노인의 삶처럼 온몸이 마비되어 가는 상태에서도 그는 자신의 인생을 자력으로 꾸려가고자 했으며, 그 노력은 갤러리 완공과 더불어 적게나마 결실을 보았다.

53) 위의 책, 199쪽.

54) 위의 책, 195쪽.

(나)의 내용처럼 시한부 삶이 선고된 상황에서 당장 간절했던 것은 통증을 잊을 수 있는 하루, 절망의 끝에서 맛보는 마음의 평화였다. 그동안 제주에서의 삶과 사진 작업을 생각한다면 이곳에서의 생을 암울하게 마감할 수는 없었다. 그가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쏟았던 갤러리 두모악은 그로 하여금 한결같이 여여(如如)한 작가로서의 면모와 품격을 남기고 떠날 수 있도록 해주었다.

20년간 촬영한 필름과 사진은 그의 분신이나 마찬가지였다. 본인이 죽고 나면 이것들을 자신만큼 아끼고 사랑해 줄 사람이 없다는 데 생각이 이르자, 그는 나비 표본을 불태웠던 석주명을 떠올리며 안타까워했다.⁵⁵⁾ 그런 상황에서 갤러리 건립은 그를 대신해서 필름과 사진을 보관해 줄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는 작업이었다.

(가) 폐교를 임대해서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정말 기뻐다. 이제 더 이상 필름과 사진을 태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다. 수십 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 그 벅찬 감동을 상상하며 몸이 더 나빠지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일에 매달렸다. 필름과 사진의 유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기쁨 때문에 아픔도 잊을 수 있었다.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육신도 문제될 게 없었다. 필름과 사진만을 온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⁵⁶⁾

(나) 하나에 몰입해 분주히 움직이느라, 단순하고 느리게 살아야 볼 수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다.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세상과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지금이 나는 행복하다. 나의 하루는 평화롭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 또 다른 길을 찾은 것이다. 내 앞에 펼쳐진 새로운

55) 석주명(1908~1950)은 전국을 다니며 고생해서 채집한 나비 표본들을 스스로 불태웠다. 김영갑은 해마다 여름이 끝난 후 곰팡이가 핀 필름들을 태울 때면 나비 연구가 석주명의 심정을 생각했다(김영갑, 앞의 책, 2004, 204쪽).

56) 위의 책, 205-206쪽.

길을 볼 수 없는 이들은 나를 몹시 가여워한다. 새로운 길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은 슬퍼한다. 막다른 골목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했으므로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 조금 힘들고 불편해도 나에게 허락된 오늘을 즐길 수 있어서 마음이 평화롭다. 구원은 멀리 있지 않다. 두려움 없이 기꺼이, 기쁘게 떠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구원일 게다.⁵⁷⁾

루게릭병은 육신의 종말이 반드시 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예전에는 생각지 못한 새로운 깨달음으로 그를 인도했다. 병마에 소진된 육신은 사라지더라도 갤러리 두모악을 세움으로써 그에게는 기약할 수 있는 미래가 생겼다. 두모악이 존재하는 한 그는 여전히 제주의 일부로 자리할 수 있었다. 그에게 있어 갤러리 건립은 자기 존재의 연장을 의미했다. (가)에서 알 수 있듯이 필름과 사진이 안착할 장소가 생긴다는 사실에 그는 압담한 현실과 육체적 고통을 잇을 정도로 고무되었다.

쇠약해진 몸으로는 예전처럼 촬영을 다닐 수가 없었다. 새벽부터 굶고 다녔지만 충만한 열정으로 촬영하던 시절을 그리워하기도 했다. 셔터를 누를 수 없는 사진가는 고민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토록 자신을 달아오르게 했던 제주의 눈, 비, 바람, 구름, 안개를 이제는 편안히 바라보며 마음으로만 술한 사진을 찍는다고 했다.⁵⁸⁾ 그동안 오감으로 확인했기에 진짜배기라고 믿었던 것들이 허드레였음을, 20년 동안 오름 하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면서 중산간 오름 모두를 사진으로 표현하겠다고 조급해 했음을 침대에 누워 지내는 동안 깨달았다고 했다.⁵⁹⁾

먹을 여유가 되는데도 먹을 수 없게 된 현실, 미풍에도 눈물과 침이 계속해서 흐르는 상태, 안면 근육의 통증으로 웃음을 잃어버린 얼굴 등 그는 받아들

57) 위의 책, 235-236쪽.

58) 위의 책, 234쪽.

59) 김영갑, 앞의 책, 2015, 141-142쪽.

기 어려운 상황에 서서히 적응해 갔다. 육신의 장애와 고통이 있다고 해서 현재의 상황이 절망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투병 중에 알게 된 새로운 길은 그로 하여금 미련 없이, 두려움 없이 떠날 수 있도록 마음의 평화를 안겨 주었다.

건강한 육신으로 촬영에 열중하던 시절, 일에 몰두하며 살아가던 시절에는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또 하나의 세상을, 오히려 육체의 소진으로 거동이 어려운 상태가 되자 경험하게 되었다. 그가 본 새로운 세상의 모습은 그만의 기억 속에 남아 있겠지만 루게릭병이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눈을 선사했고, 그것이 죽음을 앞둔 그에게 한줄기 빛이 되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V. 맺음말: 두모악에 남겨진 예술가의 초상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에 위치한 갤러리 두모악은 사진작가 김영갑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공간이자, 그가 촬영한 필름과 사진들을 보관하고 전시하는 장소이다. 1985년 제주도에 정착하여 2005년, 48세를 일기로 작고하기까지 그는 20년에 걸쳐 제주에서 사진 작업을 했는데, 갤러리 건립과 완성을 위해 노력한 최후의 5년간은 그동안의 작업을 집대성한 시기로서, 그 이전 15년에 버금가는 값진 기간이라 할 수 있다. 그 시기 갤러리를 건립하지 않았다면 그의 필름과 사진은 대부분 소각되거나 소실되었을 것이며, 그의 작품 세계가 오늘날처럼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힘들었을 것이다.

생전의 김영갑은 사진작가로서 주류에 속하거나 주목을 받지는 못했으나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다. 본인만의 사진 철학에 충실하고자 공모전에는 출품하지 않았지만 그의 말처럼 '오로지 자신을 위한' 전시회는 어려운 형편을 무릅쓰고 매년 개최했다. 국토의 주변부에 위치한, 그가 정착했고 사랑했던 섬, 제주도와 마라도처럼 그는 비주류 사진작가로서 중산간 마을 외딴곳에서 홀로 작업을 이어 갔지만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이런

점 때문에 더욱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되었다.

김영갑은 세상을 알아가기 위한 도구로서 사진을 선택했지만, 전문적으로 사진을 배운 적은 없었다. 중학교 시절, 선배 부친의 사진관 일을 도우면서 사진에 눈을 떴고, 그 후로는 자신만의 경험으로 작업을 해 나갔다. 현실에 발을 딛고 살면서 상업성을 배제한 채 사진에만 전념한다는 것은 평범한 삶을 포기하는 일이었다. 그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이 본인과는 맞지 않음을 알았기에 자신을 붙잡는 여인을 떠나 제주도에 정착했고 사진에만 몰두했다. 이러한 제주도 정착에는 무리에 속해 있기 힘들어 하는 그의 성품도 한몫을 했다.

어린 시절부터 떠돌이의 삶을 동경했던 그는 세상을 알고 싶어 전국을 돌아 다녔지만 시행착오만 거듭했을 뿐 깨달은 바가 없었다. 그 후로는 한 곳을 진득하게 파고 들어감으로써 세상을 이해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고, 그래서 선택한 곳이 제주도였다. 넓게 시작하여 깊이 알아가는 것을 '박이정(博而精)'이라고 한다면, 그는 '정이박(精而博)'의 방식으로 태세를 바꾼 것이다.

세상을 알아 가는 방편으로 선택한 것이 사진이었기에 그는 작가로서 자신만의 사진 세계를 열어가고자 했다. 남이 찍는 사진을 흉내 내는 데 만족할 수 없었기에 자신만의 독창적인 미학과 이론을 갖추고서, 사진을 통해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풀어내고자 했다. 이러한 목표 의식도 그가 제주에 정착한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본고의 논의 대상인 두 권의 자전적 에세이집, 『섬에 홀려 필름에 미쳐』, 『그 섬에 내가 있었네』에는 사진에 대한 전문적인 용어나 지식에 대한 언급은 없다. 오로지 저자 김영갑이 사진을 찍는 방식, 사진 작업에 임하는 태도, 그리고 사진에 대한 열정과 집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본고에서도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예술혼의 극대화와 자기 구현, 의도된 구립과 몰입, 응답으로 다가온 구원과 소진이라는 제목하에 제주를 사랑했고, 이 섬에 집중하고자 했던 작가의 열정과 집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종교인에 비유해서 보자면 그에게 있어 제주도는 종교였고, 사진 작업은 수행의 과정이었으며, 카메라는 화두였고, 사진은 수행의 결과물이었다. 그는 사진에 대한 헌신과 몰입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을 둘러싼 껍질을 깎으며, 갑작스레 만난 루게릭병을 통해 다시 새로운 세상에 대해 개안(開眼)했고, 이를 계기로 <김영갑 갤러리 두모약>을 건립했다. 그가 제주도에 정착했던 20년 세월은 사진에 대해 스스로가 부여한 소명을 위해 살아가며, 응답을 기다렸던 구도자적 여정의 기간이었다.

참고문헌

- 강덕환, 「이 섬에 그가 있었네-두모악 김영갑을 얘기함-」, 『열린시학』 26(1), 2021.
- 공자 저, 성백효 역, 『논어집주(論語集註)』, 전통문화연구회, 1993.
- 김영갑, 『마라도』, 눈빛, 1995.
- _____, 『섬에 흘러 필름에 미쳐』, 하날오름, 1996.
- _____, 『그 섬에 내가 있었네』, Human & Books, 2004.
- _____, 『오름에서 불어오는 영혼의 바람』, 다빈치, 2015.
- 김영갑, 이생진, 『숲 속의 사랑』, 우리글, 2010.
- 양인자 외 20인, 『김영갑-김영갑 5주기를 추모하며』, Human & Books, 2010.
- 이용규, 고동우, 「농촌 폐교의 문화시설로의 활용을 위한 기초적 연구-김영갑 갤러리 두모악 미술관을 대상으로」,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15(2), 2013.
- 이즈미 세이치 저, 김종철 역, 『제주도-1935~1965』, 여름언덕, 2014.

Abstract

Photographer Kim Young-gap's Journey of
Iligwanji (一以貫之) as a Truth seeker
- Focusing on his autobiographical essay collections,
Fascinated by the Island, *Obsessed by the Film* and
It was I that was in the Island

Jeong, Siyoul*

This study examines the specific aspects of passion and tenacity for photography by looking into the text of *Fascinated by the Island*, *Obsessed by the Film* and *It was I that was in the Island*, autobiographical essay collections left by photographer Kim Young-gap(1957-2005), to consider his attitude towards photography and his thoughts and comments as an artist that took pictures of Jeju Island only.

Under this research purpose, this study develops discussions in three aspects: the maximization of artistic spirit and self-actualization, intentional isolation and immersion, and salvation that comes in response and exhaustion. First, to him, photography was a process of self-actualization to find his original self that had been tinged by the world and lead an independent life. Second, He was able to overcome human loneliness in two ways, isolation and

*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Yeungnam University.

immersion, and focus on photography in Jeju. Third, Kim Young-gap's life spent in Jeju Island was a time of longing and waiting for a response, and the response he waited for was not recognition and praise at the world level but awakening and awareness arising from within himself. His body was exhausted after all, but through Gallery Dumoak, he could be saved.

Kim Young-gap was involved in photography for more than 20 years as he took pictures in and out of Jeju Island from 1982, settled there in 1985, and then passed away at the age of 48. To him, Jeju Island was a religion, photography was a process of asceticism, the camera was the topic, and photography was the outcome of asceticism. He broke the shell surrounding him through his own dedication and immersion in photography and opened his eyes for a new world through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that he encountered all of a sudden, and taking that as an opportunity, he came to build "Kim Young-gap Gallery Dumoak". The 20 years he spent in Jeju Island were a period of the journey as a truth seeker who lived for his own calling for photography and waited for a response.

Keywords: Kim Young-gap, Jeju Island, Dumoak, photograph,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논문투고일 2023. 06. 15.

심사완료일 2023. 07. 13.

게재확정일 2023. 07. 17.

